

제주사회복지신문

>2015년 6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92호



▲ 지난달 22일부터 4일동안 제주도 일원에서 열린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제주학생들이 41개 메달로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전지웅(제주영지고 2, 보치아), 김현곤(제주영송학교 초등6, 육상트랙), 김주일(제주고 3, 탁구), 김승범(제주고 3, 축구).

전국장애학생체전서 제주 역대 최고 성적

금17(시범 2)·은13·동11 총 41개 메달 획득
제9회 체육대회 도내 일원서 4일간 열려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제주종합운동경기장 등 도내 일원에서 열렸다. ‘함께 주인공이 되는 제주’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3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그 동안 갖고왔던 실력을 한껏 뽐냈다.

대회종목은 육성종목 골볼, 보치아, 수영, 육상, 탁구 5개, 보급종목 배드민턴, 농구, 배구, 볼링 등 10개로 모두 15개다. 제주도 선수단은 선수 95명을 비롯해 경기 임원 및 인솔교사, 임원 130명 등 모두 225명이 참가해 육상과 수영, 배드민턴, 축구 등

10개 종목에 출전했다. 그 결과 제주도 선수단은 금메달 17개(시범2), 은메달 13개, 동메달 11개로 총 4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다.

종목별로는 육상에서 21개의 메달(금8, 은9, 동4), 수영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따며 기록종목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탁구에서는 금2, 은2, 동3 개 등 총 7개로 체전 참가 최대 메달을 획득해 탁구종목 종합준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대회 마지막 날 열린 축구 결승전에서는 제주가 부산을 상대로 4 대 0으로 승리하며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이번 대회에는 다관왕도 많았다. △육상 F35(남고부 포함·원반던지기)=송민울(제주영지) △육상 T20(남초부 100·200m)=김현곤(제주영송) △수영 S5~S8(남중부 50·100m)=아라중(아라중) △탁구 TT11(남고부 복식·혼성단체전) 김주일(제주고), 이승현(함덕고) △배드민턴 DB(초/중/고부·여자단식·복식)=김향(남원중) 선수가 2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제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전국단위 장애인종합 체육대회로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장애인체육 인프라가 열악한 환경인 제주에서 개최되는 행사라 우려를 보내기도 했으나, 도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편의시설을 확

충하고 선구단 이동지원을 위해 리프트가 장착된 대형특장버스를 공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 제주도체육회의 협조로 육상, 역도, 배구, 탁구, 농구 등의 종목별 경기가 원활히 운영됐으며, 지난해 전국체전에 사용됐던 경기용 기구를 이용해 다른 대회보다 월등한 경기시설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선수저변 확충, 전문지도자 배치, 연습장 마련, 종목 편중 현상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도 장애인체육회 박종성 사무국장장은 “우수 꿈나무를 육성하고 배출하지 않고서는 일부종목에 의존하는 경향이 계속될 것”이라며 “장애인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기재가요양기관 도내 10곳 최우수등급

도내 10곳 장기재가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제5회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에서 상위 10% 내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

제주지역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은 분야별로 ▲방문요양분야 △성안노인복지센터·엔젤방문요양지원센터·제주이어도돌봄센터·시온요양기관·경천노인복지센터 ▲방문목욕분야 △성안노인복지센터·경천노인복지센터 ▲주야간분야 △삼양소규모 노인종합센터·평안재가노인복지센터 ▲복지용구분야 △힘찬노인복지센터·제주이어도돌봄센터·효행복지용구사업소 등 10곳이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평균 4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받고 최우수기관 현판을 수여받는다.

1일부터 맞춤형급여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생계·의료·주거·교육부분으로 나뉘는 맞춤형급여를 이번달 1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급여는 이번 집중기간(1일~12일)에 신청할 경우 다음달 20일경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도내 사회복지 인권향상을 위해 법률 홈닥터가 달려가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사회복지종사자·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1. 인권상담 2. 소송 절차 안내 3. 법률구조기관 등 연계 4. 법문화 출장 교육 등

신청 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상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법률홈닥터에서 신청
▶ 전화상담 :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064)702-3782



▲ 지난달 8일 울곡어린이집 아이들과 주간보호 어르신들이 어버이날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의 행복한 만남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 달 8일 주간보호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버이날 맞이 행사를 열었다.

2015년도 생명보험사회 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에서 지원받아 운영하는 '등급의 치매 노인주간보

호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된 이번 행사는 울곡어린이집(원장 문정순) 아이들과 함께 진행됐다. 울곡어린이집 아이들은 행사에서 어르신들에게 직접 준비한 카네이션과 선물을 드렸고, 어르신의 삶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울곡어린이집 아이들은 사전에 준비한 '내 나이가 어때서', '소고동자' 공연도 선보였다.

한편 울곡어린이집은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주간보호실에 2008년부터 정기적인 후원과 공영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사회복지관설치·운영 조례 등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대전·중문·예래동))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김태석(노형동 갑))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익자(비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의(비례))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사회복지 관련 조례(김경학(구좌읍·우도면), 유진의)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조례안(현정화) 5건을 입법예고 했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는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에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건강증진 등이 있다.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과 동일하게 적용해 효율

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됐다. 주요내용은 운영위탁, 운영 지원 등이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의무 등이 포함됐다.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개정 및 부분정비가 이뤄졌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변경,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항목이 추가됐다.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조례안'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지급대상, 투석비용 등이다.

6월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보도자료 접수' 게시판에 게재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체험 전시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설명회 •전시, 시연 및 체험 기회 제공 •상담 및 구입	4일, 10시~18시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710-1212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장애인사이클대회	•제주시 김녕~구좌해안도로에서 300여명 참여한 가운데 싸이클 대회 개최	12일, 10시~16시30분 제주시 구좌읍체육관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캠페인 대국민공개강좌 '공부, 왜 안 되?'	•제 1강의: 공부가 힘든 아이들 •제 2강의: 공부, 왜 힘들까? •제 3강의: 공부, 이렇게 해보자!	10일, 10시~12시 제주대학교병원 2층 대강당	728-4074~7
	제주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심포지엄	•특강 I: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의 역할 •특강 II: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기관 협력 방향	4일, 14시~18시 제주대학교병원 2층 국제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현장실습 슈퍼비전 기법	•사회복지현장실습 슈퍼비전의 설계 과정 모델, 기법, 자세와 역할 •강사: 박영숙 관장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9일, 14시~18시 협의회 1층 소회의실 교육비: 홈페이지 참조	
	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 인증요원 양성교육(2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인증관리 DB시스템 활용 등	9일, 14시~18시 협의회 2층 삼다수홀 교육비: 홈페이지 참조	
	설문지 작성부터 분석보고서 작성까지 (SPSS활용)	•설문지 작성기초, 설문지 설계 및 완성, SPSS를 활용한 통계분석 •강사: 송장희 과장 (청주상당노인복지관)	16일, 10시~18시 협의회 2층 삼다수홀 교육비: 홈페이지 참조	702-3784
	사회복지시설 노무관리	•근로계약 체결 및 취업규칙 •임금 및 퇴직금과 임금설계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 해고, 징계, 퇴직 •주요판례 및 실무사례 연구 •강사: 김기배 노무사(노무법인 벽성)	30일, 14시~18시 교육비: 홈페이지 참조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5월 식품기탁자

- ▲금강수산유통=냉동해물 32kg ▲김치원=김치 40kg
- ▲꽃비나리는뜨락=떡 290개 ▲동원F&B제주=냉동식품 등 2,755개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등 692개 ▲신화유통=고추장 등 153개 ▲암암영농조합법인=유기농빵 22개 ▲이든이네=멸치 9kg ▲자연드림이도점=빵 123봉 ▲제주다영농조합법인=수제차(40g) 150봉 ▲제주보리촌=보리빵 610개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539봉 ▲행복나눔마트=세제 90kg



사회복지협의회 2015년 4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96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380,000	380,000
복지사업후원	950,000	333,000
푸드마켓후원	2,885,000	1,097,45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고치환
- 편집인: 고경운
- 등록번호: 제주 라 01010
- 창간일: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디자인열림

제주시, 위기청소년 맞춤형복지 추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자', '비행 및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의 180%미만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지원(월 50만원) △건강지원(연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월 15~30만원) △자립지원(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월 20~25만원)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월10만원 이내) △기타지원 등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사리 청정축제로 길트기공연 열어

장애인거주시설 성자현(원장 진유신)은 지난달 2일 남원읍민속보존회 회원들과 함께 제20회 한라산 고사리 청정축제를 다녀왔다. 이번 축제에서 남원읍민속보존회와 거주인들은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배워온 우리가락을 길트기 공연에서 선보였다. 남원읍민속보존회 김경자 사무국장은 "이번 공연을 통하여 성자현 식구들이 자신

감이 향상되고 행복해하는 모습 속에서 가슴 뿌듯한 행복감과 보람을 느꼈다"며 "기쁨을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진유신 원장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함께라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거주인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직무역량강화 바리스타 양성과정 운영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잠재력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향기로운 커피향으로 희망을 job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바리스타 검정자격 취득과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발

달장애인의 바리스타 전문교육 이수 및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을 목적으로 카페직무에 필요한 직무역량 강화 및 바리스타 양성과정이다. 도내 발달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기초과정 20회기, 심화과정 15회기, 바리스타 실기특강 10회기, 이동카페운영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내 노인 5명 중 1명 독거노인

한국, OECD 기준 노인빈곤율 1위 차지

제주도내 노인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인자 의원(새누리당 비례)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독거노인 인구 현황'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8만1589명이며 이중 독거노인 수는

1만808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노인인구 대비 22.1%를 수준으로 지난 2011년 보다 11.8%(1909명)가 늘어난 수치다. 도내 독거노인 수는 2011년 1만6172명에서 △2012년 1만6700명 △2013년 1만7192명 △2014년 1만7647명 △2015년 1만8081명까지 점진적으로 늘었다. 전국 독거노인은 137만

9000여명으로 전체 노인인구(642만9000여명) 대비 20%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만3000명, 서울이 18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달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상대적빈곤율은 49.6%로 OECD평균 12.6%를 초과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지난 4월 30일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정영은)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서 인증한 한국형자살예방교육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주시보건소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제주지역사회내 관련기관 실무자들과 제주시 내 맞춤형방문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이 교육을 통해 양성된 생명사랑지킴이들은 제주시 내 자살 고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라며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포괄적인 자살예방운동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퓨전국악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어버이잔치'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지난달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서부종합사회복지관 4층 강당에서

퓨전국악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어버이잔치'를 열었다. 이날 잔치에는 지역 내 어르신 2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영주E&I(대표 홍성광), 한국남부발전소(주)한림복합화력발전소의 후원으로 식사를 제공하였고 하나아트국악연희단의 재능기부로 퓨전국악공연이 진행됐다. 안원식 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재능기부 및 후원 기관과 협력해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적·자폐성장애인 수영교실 운영



중증장애인지간보호시설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지적·자폐성장애인의 물에 대한 두려움 해소 시키고자 '水ports, 수영! 우리 요즘 물 만났水~' 수영교실을 진

행하고 있다. 기초체력 단련과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기획된 수영교실은 다양한 진행방법을 통해 욕구를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박영재 원장은 "수영이라는 전신운동으로 마사지효과를 높이고 근육 사용량을 증가시켜 신체기능 향상은 물론 정신적 안정감과 생활의 활력을 갖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련·김은별·서보혜 '내 꿈은 파티시에 대회' 대상

(patisier, 제빵사)



▲ 왼쪽 여섯 번째부터 김혜련(월랑초 6), 서보혜(신광초 4), 김은별(월랑초 4) 학생이 '내 꿈은 파티시에 대회' 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임성욱)는 지난달 2일 SPC그룹이 주최한 '제4회 내 꿈은 파티시에 대회' 에서 아동부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내 꿈은 파티시에 대회는 전국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청소년 팀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실력을 겨루는 행사로 SPC그룹과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주최로 해마다 진행된다.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더불어 제빵사' 팀(김혜련 월랑초6, 김은별 월랑초4, 서보혜 신광초4)은 아동부 부문에서 '삼색샌드위치'를 만들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아동부 대

상을 받았다.

'더불어 제빵사' 팀의 김혜련(13) 학생은 "파티시에가 되는 것이 꿈인데 이번 대회에서 큰 자신감을 얻었다"며 "앞으로 더 노력해서 꼭 훌륭한 파티시에가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전국 64개 참가팀이 참가해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을 가렸다.

엔젤스봉사단과 봄소풍 행사 열어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2일 제주렛츠런파크에서 한국마사회제주 렛츠런엔젤스봉사단의 지원으로 거주 장애인 보호자들과 함께 봄소풍 행사를 열었다.

봄소풍 행사는 점식식사와 레크레이션이 함께 진행됐다. 또한 엔젤스봉사단은 송죽원 보호자들을 위해 소중한 기부금도 전달했다.

소/식/마/당

성년의 날 행사 열어



행복한쉼터(원장 정석왕)는 지난달 18일 성년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성년이 된 이용자 3명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추억을 담은 사진을 보고, 부모님의 영상 편지, 장미꽃 전달식, 성년이 된 이용자들의 앞날을 기원하는 축배 나누기 등으로 이어졌다.

정석왕 원장은 "이용자들을 비롯한 성년을 맞은 모든 청년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버이날기념행사 홍보캠페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달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제43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여해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제주노인보호전문기관은 행사가 진행된 제주시(한라체육관), 서귀포시(올림픽기념생활체육관)에서 어르신들에게 24시간 노인학대신고전화 안내와 함께 홍보기념품을 전달하였다.

2015년도 장애학생 주말학교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는 (회장 박영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원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장애학생 주말학교'를 운영한다.

지난달 9일 오리엔테이션을 연 주말학교는 앞으로 예체능 활동 등의 문화체험학습의 기회 제공할 예정이다. 주말학교는 볼링반, 풋살반, 풍물반, 동화구연반, 난타반 등 5개 반을 개설하여 운영되고 있다.

아가의집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박두현)은 지난달 9일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에서 가족,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공 굴리기, 지네발 걷기 등 다채로운 게임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늘품회와 함께하는 나들이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 신부)은 지난달 9일 봉사단체 늘품회(앞으로 좋게 발전할 가능성을 뜻하는 순 우리말)의 후원으로 이용자 26명과 함께 '선녀와 나무꾼'과 '포니벨리'에 볼나들이를 다녀왔다.

제주도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늘품회는 지난 3월 제주애덕의집과 첫 인연을 맺고 노력봉사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카붐! 왓썸인제주' 공연 관람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현성훈)는 지난달 8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연계로 '버라이어티쇼 카붐! 왓썸인제주'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을 관람한 센터 이용자들은 난타연주를 들으며 앞에 있는 테이블을 두드리는 등 리듬을 맞췄으며 마술쇼와 레이저 쇼를 볼 때는 다 같이 합성을 지르기도 하며 즐거운 문화공연을 마무리하였다.

제주영유아장난감도서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흥익원이 제주시 동부권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영유아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장난감도서관사업은 201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당선을 통해 시작된 사업으로 2016년까지 삼성 SDI가 후원한다.

제주영유아장난감도서관은 7세 이하의 영유아들이 이용가능하며 취약계층은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장애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부모들이 참여하는 이 교육은 지역 내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장애이해 고취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개선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제2회 뽀뽀한(fun-fun) 명랑운동회 개최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정혜 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 달 2일 서귀포올림픽기념국 민생활관에서 제2회 정혜가족체육대회 '뽀뽀한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이 운동회는 정혜원의 가족과 후원자, 지역사회 주민들을 모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지난해부터 열렸다.

남광초 3남매 용돈모아 과자기부

남광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남매 한승준(6학년), 한승균(5학년), 한예은(유치원) 어린이들이 지난 달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제주시희망원(원장 김성자)을 찾아 정성스레 포장한 과자 100봉지를 전달했다. 과자봉지에는 '사랑해요. 힘내세요'라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김성자 원장은 "용돈을 아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 학생들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훈훈한 정을 가슴에 새겼다"고 말했다.

가족제자사랑한마음 오름트레킹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허철수)는 지난 달 30일 제주시 사라봉축구장에서 '제11회 가족제자사랑한마음 오름트레킹'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가족 및 스승, 제자의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라봉-별도봉 구간을 트레킹하며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했다. 체험장에는 천연방향제 만들기, 재활용품 활용 연필꽂이 만들기 등의 부스가 준비됐고,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가정의 달 가족사진 공모전 수상작

“우리가족 웃음으로 넘쳐요”

○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주최 수상작



| 최우수상 |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과 하나가 되는 우리가족 / 고경보

가정의 달을 기념해 열린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허찬란) '제2회 가족사진공모전' 수상작이 지난 달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가족의 문화가 담긴 사진'을 주제로 열렸다. 입상작들은 지난 달 17일 2015 가족축제에 전시됐으며, 아래는 최우수상과 우수상(가족문화상)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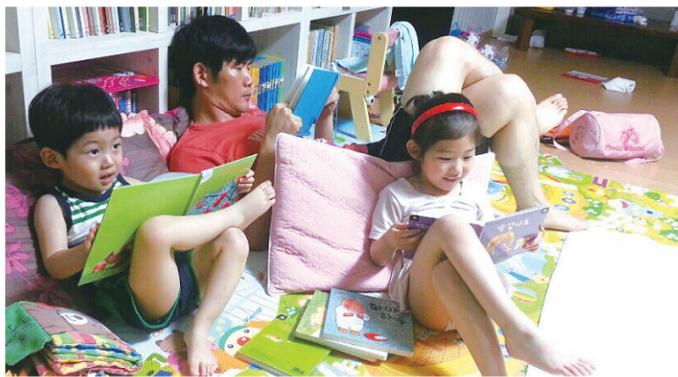
| 가족문화상 | 고군분투(?) 하는 아빠의 모습 / 좌우경



| 가족문화상 | 눈과 입이 즐거움으로 가득 / 고훈순

○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주최 수상작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강은희)가 '마음을 나누는 가족사랑 공모전' 입상작을 발표했다. 가정의 달을 기념해 열린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 감동적인 내용과 우리 가족만의 훈훈하고 소중한 이야기 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였다. 아래는 공모전 최우수상(건강가정상)과 우수상(행복가정상)을 실었다.



| 행복가정상 | From read to happy / 김성희



| 행복가정상 | 술빵만들기 / 김용찬



| 건강가정상 | 아빠 달려 달려 / 현광남

시론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현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활동한지 1년이 되어간다. 그간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기 위해 현장의 소리를 듣는데 주력하였다.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시행한 16개 사회복지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사회복지 각 분야의 다양한 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사회복지현장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발굴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우리 상임위 의원들이 도민들을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자치입법권 침해여부 등 질의

사회복지현장의 현안을 해결해 가는 과정 못지않게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의 구조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 또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는 의원 발의로 총 4건의 조례를 제·개정하고, 현재 6건의 조례를 입법예고함으로써 사회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애쓰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의회의 역할을 제한당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침해,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따라 우리 상임위에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장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보건복지안전위원장으로 느끼고 있는 막중한 책임 가운데 하나는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때 복지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그로인해 복지제주의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회가 닿을 때 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질의와 확인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법안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과 국비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성과가 이뤄지기도 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특별자치도다운 수준 높은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매진 할 것이다.

기고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 '봉사활동'



조동현

연동주민센터 주민자치담당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길을 지나다 불편한 사람의 물건을 들어준다거나 무거운 손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 일, 양로원에서 아들이나 손주처럼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일 등은 사소해보이지만 모두 마음을 나누는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연동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연동 관내 자

생단체와 적십자사, 시·도 관계부서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모두가 힘을 모아 피해가구를 찾아다니며 일손이 필요한 곳에서 주저하지 않고 참여하는 모습을 봤다.

이 경험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봉사자 분들은 자신의 조그마한 희생을 통해서 사고 피해지역에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자원봉사라 함은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 또는 그런 활동' 이라 하듯이, 자원봉사자들의 작은 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른 아침 학교 앞 아이들의 등굣길과, 회사원들의 출근길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게

교통지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야간 방법활동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 등이 미미해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효과가 모이면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전공이나 특기를 살려 재능기부나 멘토링 등을 통해서도 봉사활동을 시작해 본다면 어떨까. 봉사활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살고 있는 가까운 읍, 면, 동주민센터 및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자신에 맞는 봉사활동을 문의해 보자.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기란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에 투자한다면 무엇보다도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칼럼

침묵과 말 사이



김길웅

시인 · 수필가

‘침묵하면 불편해지고, 말을 하면 우스워져’

독일의 작가 헤르타 및러의 장편 소설 「마음 짐승」의 첫 행이 이렇게 시작된다. 결국(結構) 상 줄거리를 풀어나가기

위한 신선한 도입이 뭔가 쿵 하고 읽는 이의 가슴을 친다.

침묵이 금이지만, 침묵은 때로 무기력함이나 비겁함일 때도 있다. 말을 많이 하면 쓸모없는 말은 줄어들고 그만큼 실수가 많아지는 법이다. 또 오해가 오해를 불러 말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하지만 말은 해야 맞고 뱉어야 직성이 풀린다. 말을 하지 않으면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심하면 관계에 단절이 온다. 입을 한사코 닫아 버리는 일은 결코 생활인의 온당한 자세라 할 수 없다. 적당히 침묵하고 조절하는 말이 필요한 시대다. 당연히 말해야 할 사람들은 침묵하고, 정작 입을 닫고 있어야 할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쏟아 놓는 것은 아닌지, 어째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

말 많은 사람일수록 실수도 많아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말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고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이 매력적인데도 실천이 어렵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삶의 주변을 둘러보며 실감하거니와 참 말 많은 세상이다. 목소리 크기가 옳고 그름을 우선하는 것 같은 사회 풍조 탓인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변가이지 말 잘하는 달변가는 아니다.

이 대목에서 작자 미상의 고시조 한 수를 떠올리게 된다.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은 말을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옛날에도 말이 많았던 모양으로 말의 속성과 묘리를 꿰찼다.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하는 것’에 공감한다. 말이란 묘한 것이어서, 말이 나오면 말에 꼬리를 물게 마련이다. 가타부타 토를 달게 되고 말에 말이 덧붙고 때로는 엉뚱하게 꾸며지면서 와전되기 십상이다. 이 말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얘이기도 하다.

자기 생각과 감정에 복받쳐서 마구 쏟아내는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든다. 정제되지 않은 말을 토해내기보다는 차라리 말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고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 쪽이 훨씬 향기롭다. 말은 하되, 삼가야 한다.

○ 특강 재난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최근 네팔 등 세계 각국에서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상황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달 22일 협의회2층 삼다수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는 레나 도미넬리(Durham University UK, 전 세계사회복지교육협의회장) 교수를 초청해 '재난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을 주제로 특별강좌를 열었다. 통역은 한인영(서울시복지재단 이사장)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아래는 강의의 간추린 내용이다.<편집자주>



▲ 지난달 22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150여명의 수강생이 모인 가운데 '재난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특별강좌가 열렸다.

적응유연성 기르고 지역에 맞는 실천법 마련해야

재난 상황 대비해 네트워크 조성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해야

최근 네팔 지진 현장을 찾았다. 그곳은 히말라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지지체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들을 돕기 위한 첫 활동으로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학교를 찾아 사회복지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지에 대해 제안했다. 그리고 재난상황에 대처할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당시 그곳은 정부의 도움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아 우리의 도움이 중요했다.

재난 상황에서 여러 문제들에 봉착한다. 희생자를 돕는데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금펀드는 어떻게 모을 것인가 등에 대한 물음이 쏟아져 나온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는 매우 중요하다. 네팔에서의 초기 활동은 음식, 물, 약 등과 텐트, 옷과 같은 의식주 지원활동에 중점을 뒀다. 그 다음은 화장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질병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역실정 맞는 실천법 필요

재난 시 높은 수준의 적응유연성은 중요하다. 적응유연성이란 응급상황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있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해 위험성을 줄이는 역량을 말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재난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위험성, 취약점, 권한을 부여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개념을 알고 현장에 대해 사정해야 한다. 이 과정

에서 서로 언어도 다르고 의사소통의 방법도 다르기에 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맞는 실천방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 자연재해 대처 안하면 인재

재난에 대해서 자유로운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 또 여러 재난들이 자연재해라고 보기 쉽지만, 완전한 자연재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실 홍수만 보더라도 배수가 잘 되지 않게 도시를 만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연과 인적인 요소가 결합된 재난을 복합적재난이라 한다.

중국에서 얼마 전에 지진과 홍수로 수천 명 사망했다. 이는 인적재난의 한 종류다. 이 재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중국은 관습

적으로 진흙으로 만든 벽돌 집을 짓는다. 그러나 이런 집은 지진과 홍수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는 미래에 어떤 식으로 집을 지어야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지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난의 정의를 짚고 넘어가자. 유엔에서 정의한 재난은 '일상생활기능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외부의 원조가 요구되는 충격'이다. 우리는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온갖 재난을 자연재해라 말하지만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지 않았다면, 이는 인재가 된다. 그 중에서도 빈곤의 문제는 자연재해가 인재로 연결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실 앞서 말한 중국 사례를 보면, 정부는 지진에 대비한 강령이 잘 만들어져 있었

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강령보다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강령을 무시하고 있었다. 이유는 그들은 강령에 대해 말을 하면 "내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다.

◆ 빈곤은 재난을 더 악화시켜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은 개인책임이라 인식하기 쉽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인간의 빈곤문제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빈곤문제가 재난을 더 악화시킨다는 예는 제3세계의 일이라 치부하기 쉽지만, 영국의 셰필드라는 도시만 하더라도, 연간 3만 명의 노인이 빈곤 문제로 인한 습하고 추운 환경으로 폐질환 등을 앓다 죽는다. 빈곤과 같은 천천히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 희생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주기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Interview

“환경에 관심 갖는 사회복지사 돼야”



레나 도미넬리 교수
Durham University, UK

Q. 최근 어떤 재난현장을 찾았나?

최근의 재난 현장은 대부분 가봤다. 스리랑카, 칠레,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일본 후쿠시마 등을 찾았다. 직접 찾지는 못했지만 멀리에서 도움을 준 곳은 이란, 필리핀 등이 있다. 이곳을 위해 기금 모금 활동

을 하거나, 사회복지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

Q.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재난사회복지가 꼭 필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중 필수 사항으로 포함시키고 싶다. 또

세계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환경문제를 더 잘 인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내에 그린 소셜센터를 만들고 싶다.

Q. 제주의 사회복지사들에게 한마디 전한다면?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재난 발생 전후 리서치를 통해 지역사회를 정확하게 파악해

줘야 한다. 또 사회복지계의 특징이자 장점인 네트워크도 잘 만들어야 한다.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그린소셜워커라 부른다.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복지사가 되길 바란다.

시설탐방

(67)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의 든든한 디딤돌

“이주민들의 삶을 돕는 통합서비스 지속해 나갈 것”

도내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거주외국인은 현재 1만5568명,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는 2696명이다. 이는 전년(2013년)과 비교해 외국인의 경우 23%(전국평균 8.6%) 증가, 결혼이민자는 11.3%(전국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전국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정우)**는 제주시 지역 내 이민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달 18일 센터를 찾아 그들의 활동 면면을 들여다봤다.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부설 제주이주민센터가 운영하는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7년에 처음 ‘제주도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이후 다문화가족법 12조에 근거해 센터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되며, 2010년도

에는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할을 제주시로 한정한다.

사례관리사,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지원사 등 17명이 근무하고 있는 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가족지원의 종합적 전달체제의 역할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상담, 사례관리, 통번역 등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가 운영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교육사업을 빼 놓을 수 없다.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취업 등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은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 방문교육 두 가지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내에서의



▲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및 가족통합교육, 상담, 사례 관리 등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차이를 줄이기 위해 다문화가족통합교육으로 가족교육, 배우자교육, 부부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강사를 학교에 파견하기도 한다. 지난달 3일에는 제주이주민센터와 함께 네팔지진 피해 추모제를 열었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일일맛집을 열어 모금활동도 했다.

김정우 센터장은 “이민자들은 단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에

정착해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분들”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712-1140〉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23)

청소년 영어봉사단 랭프를 만나다

제3기 몽생이기자단은 첫 취재로 청소년 영어봉사단 랭프봉사단을 만나기 위해 탐동해변광장으로 모였다.

랭프봉사단은 랭귀지프렌드(Language Friends)의 약자로 2012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영어봉사단이다. 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제주도 전역의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봉사단에는 제주에 거주하는 원어민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봉사단은 2주에 한 번씩 외곽 지역에 사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영어교육 및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원어민을 통해 외국문화도 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랭프봉사단은 매년 캄보디아 씨엠립 국찬초등학교를 찾아 영어로 미술, 음악, 과학, 체육,



▲ 랭프봉사단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제주시청에서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사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으며 2명의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선정해 함께 캄보디아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랭프봉사단 고정숙원장은 “우리 봉사단은 자기주도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사전조사, 영어문장 준비 등도 스스로 준비한다”고 말했다. 〈취재 : 몽생이기자단〉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㉒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아시나요

A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두 자녀를 본인이 맡아 키우되 남편이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돈을 보내지 않아 아이들을 키우기가 막막해졌다.

부부가 이혼한 후에도 둘 사이의 자녀를 키우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의 문제는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A씨처럼 직접 양육을 담당하는 일방이 양육비 채권자가 되고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이 채무자가 된다. 채권자가 어떠한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가능한데,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양육비 미지급시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위처럼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청구 소송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 앞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으로 된 재산이 없거나 소득 파악이 힘든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권자 손에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법적인 절차 때문에 양육비 받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가정이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에서부터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까지 담당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온라인, 전화, 방문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 1644-6621〉